

## “안정과 화합 속에서 여법하게 선출하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담화문 발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앞두고  
 ‘중앙총무기관 엄정 중립’ 당부  
 8년 임기 마치는 소회도 밝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담화문에서 “오는 10월12일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성장 속에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법석”이라며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중립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

겁게 법을 적용하여 혼란의 씨앗을 자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큰 울타리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화문에는 2009년 10월31일부터 2017년 10월30일까지 8년간의 총무원장 소임을 마치는 김희도 담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8년간 저의 화두는 오직 ‘공심(公心)’이었다”

며 “제33대, 34대 집행부는 중앙총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중대한 과제들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남은 임기동안 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되어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확대총무간담회에는 총무원을 비롯해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총무기관 기관장과 부실장, 선임 차·팀장 총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편  
 장영성 기자 fue1@ibulgyo.com

## “죽기 전 큰 불사 발원 총본산 성역화에 기부”

노인요양원 할머니 보시행 ‘귀감’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최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해 346만원을 쾌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귀감(83) 할머니가 최근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성역화 불사라는 큰 불사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기금을 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한국 불교 역사에 남을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모연에 동참했다고 한다. 200만원은 평소 인연이 깊은 스님 법명으로, 나머지는 가족들 이름으로 기금을 전했다고 한다.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불교발전을 위해 회향한 것이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는 “불심 깊은 할머니의 소중한 기금을 성역화 불사를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며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80억원이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모였다.

▶명단 2편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일본 사과 꼭 받으셔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노블상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며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자서전 한국어판 발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슈뢰더 전 총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희생된, 억울한 일을 겪은 여성들을 성노에 피해자로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도 촉구했다. ▶관련기사 4편  
 안익수 기자 jsahn@ibulgyo.com



**일광스님의  
 사랑하기 좋은날**

## 여든셋 순남할매

“하이, 관장 스님, 굿모닝 해브 나이스 데이.” 영어를 배우니 신심으로 아침 인사를 해야 한다는 순남 할머니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경쾌하다. 매주 수요일, 당시 키만한 기타 케이스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왼손에 악보를 들고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걸음이 무대에 오르는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위풍당당하다. 익숙한 곡이 복도에 울려 퍼지면 기타연주에 맞춰 나도 따라 불러본다. 어르신들이 처음 기타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로 음이 맞지 않아 도통 무슨 곡을 연주하고 계신지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행사에 초대받고 재능기부활동으로 인기를 누리고 계신다.

나젠 우리 어르신들의 무대가 그 어떤 연주보다 멋있고 감동적이다. 삶의 애환과 인생의 회음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만히 눈 감고 어르신들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어릴 적 할머니가 아픈 배를 어루만져주듯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기타반 수업을 마친 순남 할머니가 물결무늬 원피스를 자랑거리며 중국어교실로 향한다. “어르신, 오늘 너무 매력적이신데요. 반할 것 같아요”라고 하자 “아이고 고마워요. 관장님이 칭찬해주시니 더 신나네요”라고 하신다. 올해 연세를 어찌보니 “에이, 팔십셋 밖에 안되요. 어

서 중국어 배워서 중국여행 한번 가려고요.” 마치 수학여행 기다리는 아이의 들뜬 눈빛으로 말씀하신다. “복자관은 나의 두 번째 삶이요. 이곳에서 인생의 불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절 못 배운 한(恨)을 평생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열정으로 공부하고 익히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웃으시는 두 뺨이 만수무침 열매인 각시처럼 곱다.

나이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노랫말처럼 복자관 업무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포용력을 배우고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알맹이 말씀을 듣게 된다. 인생의 불날이 따로 정해져 있겠는가. 신나고 열정 있고 따사로운 마음으로 신다면 할매가 되어도 나날이 불날일 듯싶다. 거창 죽림정사

일주일에 하루, 매주 목요일에 채식하고 생명살림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채식 day 기부 day**  
 카카오톡에서 **채식day, 기부day**를 친구추가하세요.

**제7회 금강경강송대회**

본지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단체 전에는 접수 시 배부되는 2개분, 학생들의 경우 전체 32개분 가운데 5개분만 의무면 개인부문에 응시해 축제를 즐기며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7년 11월 4일(토)  
 ▶장 소: 탄허기념박물관(서울 강남구 자곡동)  
 ▶응시부문:  
 1. 개인  
 1. 성인(강송 및 필기)  
 : 32개분 중 시험 당일 공개추첨본 위외 쓰기 및 서술형주관식(한자 필기 시 가산 점 부여)  
 2. 성인(강송)  
 3. 학생(강송: 제4, 8, 10, 26, 30분 5개분 출제)  
 \*대학생은 성인부 참가 가능  
 II. 단체(5명 이상): 1. 성인, 2. 학생  
 지정분(필수: 접수 시 배부)과 자유분(선택)  
 \* 개인/단체 중복응시가능, 수행수기 및 금강경서명 수령  
 \* 표준 교재 - 조계종 표준독송본 금강경(아라리판),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본  
 ▶접 수: 2017년 8월1일 ~ 10월31일, (02)445-8484  
 금강선원홈페이지(www.geumgang.org)  
 ▶상 금:  
 1. 개인부문  
 1. 성인(강송 및 필기): 대상1000만원, 최우수상300만원, 우수상100만원  
 2. 성인(강송):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3. 학생(강송):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II. 단체부문  
 1. 성인: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2. 학생: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 각 부문 특별상 수여, 수행수기 및 금강경서명 입상 시 상금 지급  
 ▶시상식: 2017년 11월 11일(토) 탄허기념박물관  
 ◇주최: 불교신문, 금강선원, 제4교구본사 월정사, BTN불교TV  
 ◇주관: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신해행증’ 불교신문**

**‘우리가 불교문화재지킴이 119’**  
 파라마리타 분회·경주 신라문화원  
 자양복지관 광진구구루터기 5~7면

**‘범종소리, 우주를 깨우다’**  
 -소설 용성진종조사 12면

**누구에게나 ‘힐링과 꿈’ 선사**  
 가고 싶은 절...양양 낙산사 13면

## -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불교는 안팎으로 거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적 지혜에 입각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사부대중 공동체의 삶을 중단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둘러싼 환경은 무엇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는 10월 12일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성장 속에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법석입니다.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중도 모두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활발한 활력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8년간 저의 화두는 오직 ‘공심(公心)’이었습니다.**

제33대, 제34대 집행부는 중앙총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중대한 과제들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종단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 종단 구성원 개인 개인은 여전히 자신과 사찰, 문중의 범위에 고만마 머물러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종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을 교조

처럼 믿고 따르게 하는 ‘주지 불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정신 분야에서 종교의 위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일상의 삶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불교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치러지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입니다. 조계종 공동체가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와 종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종단 운영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큰 울타리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중립 중립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중립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하여 혼란의 씨앗을 자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종헌 중립 질서 속에서 잘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 수회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8년간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회향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사부대중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되어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